2009학년도 수시2 논술시험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인문·사회계)

Ⅰ. 2009학년도 수시2 논술시험 출제의 기본방향

고려대학교의 2009학년도 수시2 논술시험은 2007학년도 입시 때부터 고려대학교가 발전시켜온 통합논술의 연장선 위에 있다. 2007학년도 논술시험에서 채택된 유형이 고도의 통합과 정교한 구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을 반영하여 고려대학교는 2008학년도 입시 때부터 통합논술의 기본 유형을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노력해 왔다. 2008학년도 수시2와 정시 논술시험은 통합의 정도와 구성의 정교성을 2007학년도 논술시험과 동일한 수준에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낮추었다.

이번 2009학년도 수시2 논술시험의 구성과 난이도는 2007학년도 논술시험과 2008학년도 논술시험의 중간점에 위치한다. 이번 논술시험은 좀 더 유연하게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합의 정도를 이전보다 약간 낮추었다. 그러나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엮이는 제시문들과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생들의 논리적·문학적·수리적 사고력과 아울러 그에 대한 표현능력을 두루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술시험도 여전히 고도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논술시험의 기본방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5월에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였다 (논술시험의 내용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모의 논술시험에 대한 수험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수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부분의 난이도에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 논술시험은 명시적인 수리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조정하였다.

고려대학교 논술출제본부는 대학 입학을 위한 논술시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번 수시2 논술시험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첫째,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목표로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논술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수시2 논술시험은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백서』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하여 i)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ii)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② 고교 내신 및 수능시험에 대한 보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형 논술로서의 실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③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특히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II.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2 논술시험은 '자유'라는 큰 주제 하에 묶일 수 있는 4개의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제시문은 계몽의 이상에 나타난 자율로서의 자유가 지닌 의미에 관한 글이고, 둘째 제시문은 통상 알려져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넘어선 제3의 자유 개념을 제시하는 글이며, 셋째 제시문은 인간의 '노예근성'을 풍자하는 우화적인 글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제시문은 '자유의지'의 개념을 논리적·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는 글이다.

'자유'는 매우 친숙한 주제다. 특히 수험생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이 주제를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수험생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자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주춧돌로 하여, 제시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암기나 기계적인 연습에 의존하지 않고 평상시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독서하고 논리적·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 수험생

들만이 모든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1784년에 발표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서 취한 것이다. 통상 계몽주의는 이성 사용을 통한 인식의 성장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곤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칸트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계몽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계몽은 단지 인식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계몽의 주체로서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는 자율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계몽의 과제는 "많이 알아라!"가 아니라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로 규정된다. 계몽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다. 이는 "남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며, 이 상태는 의타적 지성의 "나태와 비겁"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몽매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소유한 지식이 적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 계몽된 사람이다. 계몽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자유는 한 번 얻어서 영구히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계몽에 관한 칸트의 두 번째 견해가 드러난다. 계몽이란 한 번의 성취로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번 다시 이루고 또 부단히 지켜야 하는 상태이다. 타율은 편안하고 유약한 인간은 이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성벽을 갖기에 자율을 획득한 이성에게는 편한 타율로 되돌아오라는 유혹이 그치지 않는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따지지 말라"는 소리와 식단을 짜주겠다는 의사, 지식을 채워주겠다는 책들의 속삭임은 모두 이런 유혹들이다. 이 유혹들에 대한 부단한 거부를 통해서만 자율로서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칸트의 계몽사상은 계몽을 인류가 역사의 특정 단계에서 실제로 도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하는 낙관주의적 계몽주의의 소박함을 넘어선다. 칸트는 계몽을 무한한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몽의 이상에 나타난 자율로서의 자유가 지닌 심오한 의미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시문을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물론 제시문은 출제 의도에 맞추어 편집되었다.

제시문 (나)는 필립 페팃(Philip Pettit)의 『공화주의』(*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7)에서 인용해서 재구성

한 글이다. 페팃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90년대 말부터 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학계의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의 가장 정교한 이론가로 손꼽히는 석학이다.

페팃은 이 책에서 고전적 의미의 자유를 '지배 없는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이 개념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지배 없는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으로서 법의 지배와 시민의 견제력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 부각된 각각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용된 제시문에서, 페팃은 1)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배 없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으며, 2) 이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부재의 대상이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3) '지배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지배 없는 간섭'은 가능하지만, 간섭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배와 예속의 상태에 행위자가 처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팃은 1) 간섭의 부재를 자유라고 규정한 홉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2) 간섭의 유무가 아니라 지배의 유무에 초점을 둔 고전적 의미의 자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제시문 (다)는 전후 신세대 대표작가 중의 한 사람인 김성한의 단편소설 <개구리>의 전반부에서 인용한 글이다. 1955년 『사상계』에 <제우스의 自殺>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이 소설에서 작가는 우화적 형식을 통해 인간의 '노예근성'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연못가에서 평화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다가, 절대군주의 폭압 아래 시달린 후, 다시금 지배자이 없던 옛 시절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인간 세상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물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시문들 사이에 배치된 이 작품은 계몽, 자유, 자율이라는 관점에서 독해되어야 하며, 이는 이 작가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독법이기도 하다.

인용된 부분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얼룩개구리가 지적으로 미성숙한 개구리족을 대상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없는 자유'를 갈망하는 초록개구리를 제외한 모든 개구리들이 부화뇌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즉자적 민중이며 의타적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계몽이 요구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제우스신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개구리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고자 했다. 그것은 신이란 존재마저도 우매한 족속들의 '의식에 뿌리박은 노예근성의 조작'이 빚어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이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거나 맹목적으

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결국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는 이러한 의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작품의 소설적 공간은 한국전쟁 직후 온갖 욕망들이 들끓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중되어가며, 좌우의 이념적 대립을 상처로 안고 있는 당시의 한국 사회와 일정정도 대응이 된다. 이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자율에 기반한 주체성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작가가 우화적 형식을 통해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 상황은 "뉴콤의 문제(Newcomb's problem)"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철학자, 사회과학자, 수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제시문 (라)는 먼저 자유의지를 선택의 예측불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 완벽하게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말해서 완벽하게 예측가능한 선택은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자유의지에 대한 여러 정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만, 제시문 (라)가 서술하는 선택상황에 대해 특정 관점을 제시한다.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가상의 선택 상황에서는 의사 결정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진다. 첫 번째 선택은 불투명한 상자 하나만을 취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선택은 투명한 상자와 불투명한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다. 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백만 원이 들어 있다. 불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억 원이 있을 수도, 아니면 아무 것도 없을 수도 있다.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 개의 상자 모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결정자에게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된다. 그 추가적인 정보의 핵심은 '상당한 예측력'을 지닌 어떠한 존재가 미리 의사 결정자의 선택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어 둘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상당한 예측력'에서 '상당한'의 의미는 미확정의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이는 출제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즉,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함을 믿고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다른 존재에 의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없다고 믿는 의사 결정자라면 추가적인 정보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전히 두 개의 상자를 모두 선택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행위를 타자가 사전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의사 결정자는 불투명한 상자 하나만을 선택할 것이다.

Ⅲ. 논제 해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2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 데 유의하였다. 또 통합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고, 특정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도 제시되었다. 통합적 사고에 대한 이런 강조는 고려대학교가 지난 2년 동안 행해온 논술시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2008년 5월의 모의시험을 통해 제시한 방향과도 일치한다.

논제 Ⅰ은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의 사전적 정의는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이다. 따라서 답안은 제시문에 포함된 요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압축적인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필수적이다. 이상은 요약문 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답안 작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요약문도 자신의 글이므로 응시자는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되고,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에 나타난 요점들을 단순히 병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점들을 제시문 (가)의 핵심 주제 아래 포괄하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계몽의 본질로서의 자율이 요약문의 핵심을 이루고, 그 외의 여러 요점들이 이 핵심을 중심으로 얼개를 이루는 글이라면 출제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제 Ⅱ는 두 개의 작은 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등장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첫 대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세 가지 정의는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정의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그리고 제시문의 저자가 대안으로 서술하는 '지배 없는 자유'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의들 중 '소극적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의 예를 통해 대조적으로 설명된다.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개구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의견들은 '자유냐 질서냐'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렴되고, 질서를 위해서는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얼룩이'와 질서를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는 '초록이'의 의견이 부각된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라는 정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작은 논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자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논술해야 한다. 특정 제시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거나 특정 제시문의 입장을 취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논제 Ⅲ은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의도된 논제이다. 수험생들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의 주장 모두에 대해서 그 논리적 근거를 구성해 내고,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자유의지의 문제와 연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숙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시문에서는 자유의지를 선택의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제시문에서 의사 결정자의 선택은 금전적인 이득의 최대화라는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숙지하면 예측자의 예측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의사 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입장과 연관이 있는지를 구성해 낼 수 있다. 먼저, 어떠한 존재가 자신의 선택을 미리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의사결정자의 경우 불투명한 상자 하나 만을 선택하는 것이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이득의 기댓값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나의 선택을 다른 존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지금 행하는 선택은 예측자가 과거에 행한 예측과 독립적인 것이며 따라서 예측자가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었는지의 여부는 나의 지금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 경우 의사 결정자는 두 상자를 모두 취하는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최대화한다고 믿게 된다. 논제 Ⅲ이 요구하는 것은 수험생이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를 옹호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두 가지 선택 모두에 대해 각각의 논리적인 근거를 구성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수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 방법일 것이다.

Ⅳ.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